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③

사띠는 자동차 엔진이다

초기불교 명상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두 축은 '그침/몰입' 유형의 명상(사마타)과 '살펴봄/이해' 유형의 명상(위빠사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니까야〉와 〈아함경〉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명상들이 등장할 때면, 어느 한쪽에 속하는 명상 수행을 설명하거나 닦을 것을 안내하는 서술 형태가 많이 보인다. 한편으로는 한역에서 지관(止觀)으로 부르는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처음부터 짝을 이루어 '그침/몰입' 유형과 '살펴봄/이해' 유형의 명상을 동시에 강조하는 형태도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방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띠(sati)'가 이들 명상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설정은 사띠의 힘을 토대로 택해야겠지만, 진행 자체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엔진의 존재가 토대가 될 것이다. 또 차체, 바퀴, 거울, 전등 등 어느 하나라도 쓰임새가 없는 것은 아닐 테지만 엔진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띠 명상이 사마타/위빠사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타나게 될 때의 사띠의 의미와 역할은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띠가 갖가지 명상법과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나타날 때의 의미에는 '그침/몰입/알아차림/살펴봄'이 그때그때 최적화의 상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힘'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의 번역어 중에서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말은 '주의 깊음'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즉, '주의 깊음'의 안정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여 사마타적인 명상인 '그침/몰입'을 지향하거나, 위빠사나적 명상인 '알아차림/살펴봄'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띠의 위상과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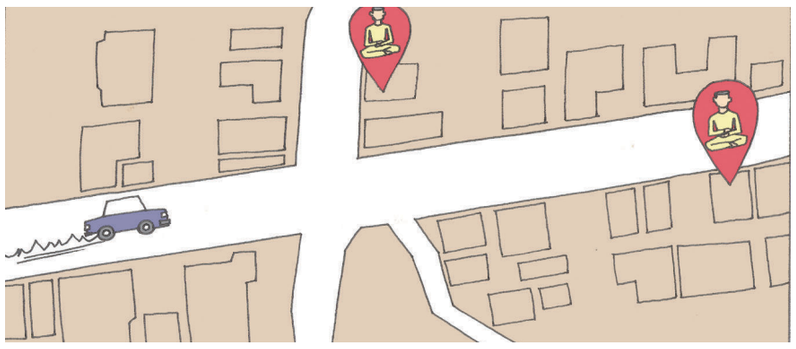


그림 · 나은영

부처님 당대에서부터 불교해석의 시대인 아비달마에 이르기까지 명상 실천가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갖가지 명상법을 불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도 땅에는 이미 '요가'라는 대단히 체계화된 명상의 방법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 명상법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사띠의 세 번째 의미를 '주의 깊음'으로 이해하는 독법에는 사마타/위빠사나를 최적화시키는 '힘 또는 발휘'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주의 깊음'의 운용은 '사마타/위빠사나' 명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정 수행법의 '지속적인 챙김'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보이기 때문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그침/몰입' 유형에 속하는 명상의 길을 택하거나 '살펴봄/이해' 유형에 속하는 명상의 길을 지향해가는 하나의 구조화 · 체계화로써 불교명상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하나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사띠를 일으켜 그 힘을 '그침/몰입'의 명상을 전개하는 데 쓰거나, '살펴봄/이해'의 명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데 쓴다는 구도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띠의 힘이 '그침/몰입' 또는 '살펴봄/이해' 중의 어느 한쪽을 지향함으로써 특정한 하나의 명상법이 구체화되는 구조에서 바로 사띠의 세 번째 의미가 드러난다. 즉, 사마타/위빠사나의 토대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 '사띠'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띠가 하나의 발전기로써 '그침/몰입' 또는 '살펴봄/이해'의 명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승용차를 운전할 때를 비유로 들어보자. 목적지와 운전자의 성향에 따라 차는 이런 저런 경로를 따라 진행과 멈춤을 반복하며 목적지로 향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길로 가야 바람직한가는 목적지와 운전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길을 선

10년 넘은 한가족 공동체…



경남 거창 남하면에 위치한 '행복한마을'에는 사부대중이 공동체를 이뤄 함께 살아간다. 2006년 설립된 행복한절을 중심으로 현재 20명이 마을에서 함께 생활한다. 행복한마을 대중들은 수행 뿐 아니라 기업을 공동운영해 자급자족을 실천한다. 또한 승가복지와 삼보수호를 위해 불사를 진행중이며, 만클릭운동을 통한 나눔 활동도 진행한다.

道伴의 향기

경남 거창 남하면 '행복한마을' 사부대중공동체

최근 불교계 안팎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다. '사부대중'이다. 사부대중은 사전적으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불법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의미한다.

경남 거창 남하면에는 '행복한 절'(주지 은산)을 가운데 두고 사부대중이 모여사는 한 마을이 있다. 바로 '행복한 마을'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대중심(大衆心)'에서 찾는다. '대중심'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이다. 그들은 '대중심'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항상 풍족하다고 했다. 그들은 현재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불교의 이상향, 도솔천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이들의 행복은 무엇일까. 이들이 지닌 꿈과 행복을 7월 9일 '행복한 마을'에서 들어보았다.

다양한 인연에도 공동체 삶 추구

행복한마을 주민인 서현주(도앙 · 31)씨는 3년 전 휴가를 겸해 방문한 행복한마을에 그대로 정착하게 됐다. 베트남 지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서 씨는 한국본사로 복귀하게 됐고, 추석을 맞아 한 달간 휴가를 얻었다.

"명절을 맞아 '나랑명상센터' 은산 스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나랑명상센터'는 행복한 절 부산 포교원입니다. 본가가 부산이어서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방문했죠. 나랑명상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마음이 들뜨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무엇인가 해답을 찾았다는 느낌이였습니다."

서 씨는 당시 자신의 삶은 남들이 보았을 때 성공의 길이었지만 스스로에게는 공허하기만 했다고 했다. 사부대중의 삶을 듣고 서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결심을 했다. 주변 친구들의 만류와 가족들의 걱정에도 서 씨가 향한 곳은 '행복한 마을'이었다.

이곳에서 서 씨가 알게 된 것은 '책임'이었다. 사부대중의 삶은 개인을 위해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개개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다.

"사부대중은 서로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입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내어줍니다. 부처님의 법 안에서 참된 대중의 삶을 실천하는 이곳이 제 인생의 답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마을'은 무보수, 무소유를 전제로 한다. 또한 삶과 수행이 일치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복한마을 서미례(도여 · 49) 사무국장은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서 국장은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왔다.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간호사와 감염관리실 과장 등을 맡는 등 사회에서 직장여성으로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에서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는 높아져만 갔다. 이로 인해 치솟는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 그녀의 화두였다. 10년 전 그녀는 이 화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행복한절을 찾았다.

"은산 스님께서는 법문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조사만 빼고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마음의 가시 같았던 분노도 해결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직장도 관두고 오게 됐습니다."

서 국장은 10년 간 행복한마을 공동체 삶에 대해 '대중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이라고 했다. 그녀는 행복한마을의 사부대중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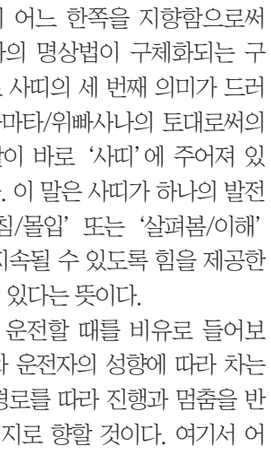
"은산 스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마음이 돼라'고 강조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저와 상대방이 서로로 인해 안심을 할 수 있는 곳, 저는 제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놓일 곳을 찾았어요."

그녀는 사부대중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끊임없이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중을 이루기 위해선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대중과 함께 해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지요."

22세에 행복한 마을에 온 김윤신(도근 · 30)씨,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녀를 홀로 키워온 정미자(도휴 · 56)씨 등 행복한마을에는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각자의 사연에도 이들이 한데 모인 이유는 하나였다. 공동체에서 삶의 참

경허선사의 사상과 선풍을 만나다!



鏡虛禪師語錄

경허선사어록

경허선사의 출생년, 법제자, 법맥 등을 바로 정리!

선사가 남긴 글들을 총망라하여 원문과 우리말 번역은 물론, 740여 개의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기존 어록집들을 비교 정리하고, 현장답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경허선사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은 첨부하여 철저히 자료에 근거한 어록집으로 새롭게 엮었다.

무이 거부 역 / 신국판 양장 / 544쪽 / 값 27,000원 / 무이정사

광대한 불법의 바다를 안내하는 나침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지? 스님은 뭐하는 분이고, 절은 어떤 곳일까?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처음 만나는 불교 1~3



박이오 저
국판변형 케이스
전3권 / 값 29,000원

1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

2 스님, 한 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

3 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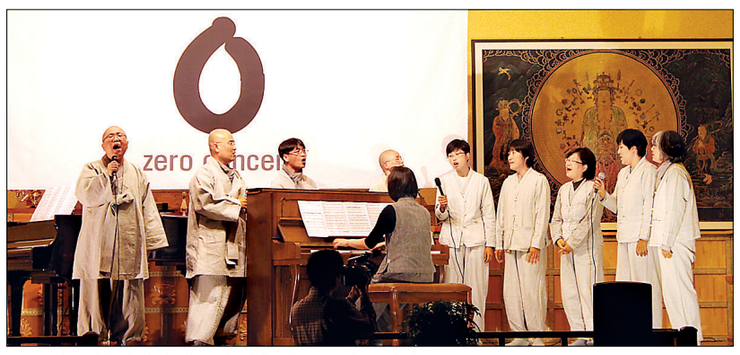
"大衆心은 행복의 열쇠"



2008년 12월 진행된 제4기 행복한 불교대학 수료식. 자체 불교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행복한 마을은 자체 생산품을 다양한 복지시설에 전달한다. 사진은 2015년 3월 에스더의 집 후원 모습.



2013년 10월 진행된 행복한 마을 제로 콘서트 장면.


행복한 마을 오후 일과로는 참선과 경전공부 등이 진행된다. 참선법회 모습이다.

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철저한 수행, 나눔 활동도 활발

행복한마을의 하루는 오전 4시 40분 수행 정진으로 시작된다. 오전 5시, 대중들은 어김없이 사경을 한다. 1시간가량의 사경 수행이 끝나면 법당 청소 등 울력과 공양이 진행되고, 오전 8시까지 경전 공부가 진행된다. 이후 각자 소임에 맞춰 일과를 보낸 후 저녁에는 참선, 경전 공부, 불교 강좌, 합창단 활동 등이 이어진다.

수행을 기반으로 행복한마을 대중들은 나눔 활동도 빠지지 않고 실천한다. 행복한마을에서는 한 달에 한번 '만클릭' 후원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만클릭' 프로젝트는 한 달에 만원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쪽방촌, 고성 보리수동산, 대전교도소 등 국내 소외계층 돕기와 아프리카 기아, 북한 어린이 등 해외돕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11일에는 100회를 맞아 합천 해인사 흥류동 계곡에서 행복한마을 대중과 만클릭 기부 동참자들이 함께 모여 만클릭 100회를 축하하기도 했다.

채식음식점 등 사업체 운영해 자급자족

행복한마을의 또 다른 특징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해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국장은 "가장 높은 공동체 결합은 무소유 공동체"라며 "다른 말로 공동소유 공동체이기에 공동노동, 공동주거, 무보수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복한마을은 채식음식점 '베지나랑'을 거창과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천연염색업체 나랑, 나랑명상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마을은 문화활동도 벌여 해피코러스 합창단을 창립하고 제로 콘서트, 송년 음악회 등도 진행해왔다.

신여리 씨는 "처음 행복한 절을 찾았을 때 음악, 차, 향 까지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수행을 딱딱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까지 곁들이니 정말 행복하다"며 "은산 스님은 모든 사물과 제품에도 마음이 표현된다고 하신다. 도반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를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승려복지 담보할 불사 발원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행복한절은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한 불사 계획도 발표한 상태다. 먼저 9월 승려 복지를 위한 '심검당(尋劍堂)'과 불자들을 위한 '휴심정(休心庭)'이 거창 행복한마을에 첫 삽을 뜬다. '심검당'은 스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노스님들

무소유·무보수 공동체 '눈길'
천연염색·채식당 운영, 자급자족
불교 수행·공부 생활화 이뤄
노스님 모시는 승려복지 불사 추진

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회향된다. '휴심정'은 입주자 모연으로 건립되며 이미 입주신청이 완료됐다. 앞으로 부산, 대전, 미국 볼티모어에도 지어질 예정이다.

서미례 국장은 불사의 내용을 설명하며 행복한 마을 설립 취지가 이곳에 담겨 있다고 했다.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살며 스님들은 수행하고 법을 전합니다. 불자들은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를 옹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노스님은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포교사나 재가불자가 도우미로 시봉하지요. 함께 일하고 함께 수행하며 함께 공양하는 삶과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불사 후 가족과 함께 입주 할 강명옥(도승 · 46) 씨는 행복한 마을에서 불교를 공부하며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털어놨다. 강 씨는 무엇보다 이곳에 들어 올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스승과 도반 그리고 절'이 있어서라고 했다.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서로를 지켜주며 죽음의 순간 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이곳에는 있습니다."

행복한마을은 지난 7월 9일 10주년 기념으로 북콘서트 '마음의 소리'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는 주지 은산 스님의 책 〈아침의 소리〉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기도 했다. 매일 아침마다 은산 스님이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보낸 불음(佛音)을 모은 책이다. 이 자리에서 은산 스님은 대중에게 행복의 비결을 설명했다.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행복한 절에 오시면 볼 수 있는 문구가 '내려놓으시오'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원인은 대상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괴로운 이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존재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서로를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가치를 내려놓았다. 집착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만난 것이 사부대중이다.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곳, 그곳이 바로 행복한 마을이다.

부처님은 승가 뿐 아니라 '선남자와 선여인들'이라며 사부대중에게 법을 전하셨다.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승가와 재가가 함께 살아가는 곳, 행복한 마을이 온 세상 곳곳에 세워지길 발원한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전법일기

한 예술가의 죽음

어느 날 조용히 병원법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자신을 한 환자의 언니라고 소개했다.

"스님, 제 여동생이 말기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기도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렇군요. 얼른 가십시다."

병실에서 결코 멀지 않은 법당이지만 언니가 이곳을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 나는 주저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와 함께 병실을 찾아갔다. 언니의 안내를 따라 병실에 들어가니 침상에 누워있던 여동생은 스님이 왔다는 소리에 몸을 일으켜 합장했다.

"스님, 안녕하세요."


그림 · 박구원

"몸도 편치 않은데 누워 계세요. 마음만 받을게요."

간단히 쾌유기도를 하고 그녀와 담소를 나눴다. 말기암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50세였다. 미혼이었고 무척 동안이었다. 오랜 병원생활로 충분히 지칠 법도 한데 그녀는 한 번의 찡그림도 없이 맑은 미소로 대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병실을 방문한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화를 마치고 언니에게 몇 가지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2000년 3월 직장암 선고를 받았다. 어려운 곳에 매월 후원금을 보내고, 이웃의 고통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등 평소 나눔을 몸소 실천해온 그녀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특히 크로마하프와 기타 연주의 달인이었고, 오카리나와 가야금, 장구에도 능한 예술적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언변 또한 뛰어나 사회를 도맡아 보기도 했다. 회사에서도 뛰어난 능력으로 늘 모범을 보였던 그녀였기에 충격은 더했으리라.

한동안 방황하던 그녀는 어느 날, 병마와 싸우지 않고 화해하는 길을 택했다고 한다. 다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무너질 수는 없었단다. 그녀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하고 마음을 다독여줬다. 그리고는 언니에게 "죽어서 돈 욕심 없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가 있던 바로 그날, 그녀는 운명의 기로에 섰다. 나는 병실을 방문해 기도를 했지만 저녁에 제사가 있어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안타까웠다. 결국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언니의 문자를 받았다.

'스님! 우리 미열이 지금 아미타부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마음 깊이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다. 퇴직금으로 병원비와 장례비까지 다 마련해둔 그녀는 조의금을 받지 말 것과 영안실 · 무덤가에서 노래를 불러줄 것, (사)푸른우포사람들 사무실 증축을 위해 100만원을 전해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장례기간 그녀의 빈소에는 애도의 소리 대신 잔잔한 하프 연주가 이어졌다.

세월이 몇 해 지나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불현듯 고인이 떠올랐다.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생전에 임종기도를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점 때문이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환자가 상심할까 걱정돼 쾌도기유만 올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알았고, 모든 것은 아쉬움이 남을 때 떠나야 한다며 담담히 가족들 품에서 임종했다.

말기암 환자 중 3~40%는 자신의 상황을 모른 채 임종한다고 한다. 사실을 알리는 걸 가족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삶을 되돌아 볼 시간이 필요하다.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가는 길, 우리 모두 도와야 하지 않을까.

무관 스님(서울 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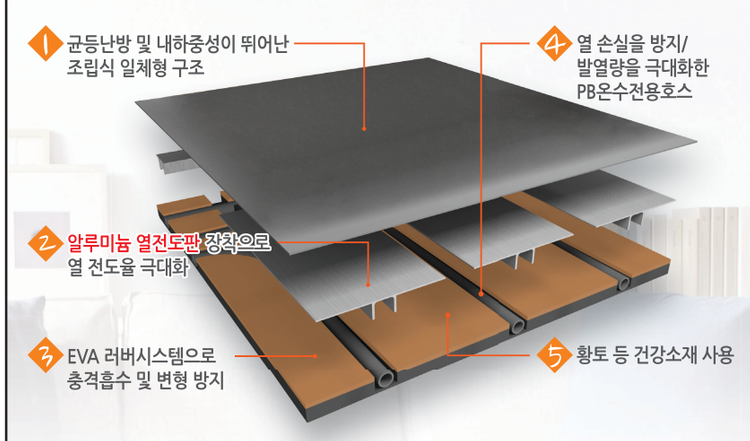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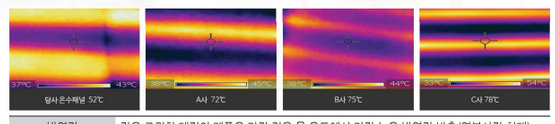
뜨시고 따시고
스님, 불자님
이제 연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조달청등록기업
MBC, KBS 방송광고제품
난방비 50% 이상 절감 / 반영구적 수명
내하중성 최고 / 전자파 ZERO





01 황토발포단열 EVA 사용
02 업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 (56%,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03 알루미늄을 이용한 방열식 온수난방패널 (특허 10-1386923호)
04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제품
05 난방비 50% 이상 절감 (45℃ 이하의 저온수 난방 제품)

열과 하중에 강한 태경에너지 온수난방패널 핵심기술
열을 넓게 퍼트리는 3면 알루미늄
발열량을 높이는 PB온수전용호스
원적외선 방출 및 항균효과가 있는 황토EVA



발열량	같은 조건하 태경의 제품은 가장 적은 물 온도에서 가장 높은 발열량 방출(열복사량 최대)
열전도율	알루미늄이 장착된 태경의 제품이 가장 낮은 온도에서도 가장 높은 열 전도율을 보여줌

금새 따뜻해지는 놀라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 제품 구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태경에너지 TAEKYUNG 온수온돌판넬 전문기업
대리점 및 제품구입문의 1833-8404 www.태경에너지.kr
가스, 전기, 기름보일러 등 어디든 사용 가능합니다